

하나님의 영원한 법칙 ‘빛’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때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다. 바로 ‘깊은 흑암’ 즉 ‘어둠’이다.(창 1:2) 하나님께서 최초로 이르신 말씀은 ‘빛’에 대한 것인데 ‘빛’은 이미 존재하던 흑암 속에 하나님의 계획에의해서 들어 온 것으로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다.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빛’ 처럼 말씀으로 ‘어둠’을 창조 하셨다는 기록이 없다. 하나님께서 ‘어둠’에 대해서 하신 것은 단지 그 ‘어둠’을 ‘빛’과 나누게 하신 것이다(창 1:4). 그리고 ‘빛’은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은 ‘밤’이라 부르셨다. 그리고 ‘빛’은 아침을 불러 오고 ‘어둠’은 ‘저녁’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그후 하나님은 이미 존재하게 된 ‘낮’을 다스리는 ‘큰 광명체’인 ‘해’와 ‘밤’을 다스리는 ‘작은 광명체’인 ‘달’을 만드시고 낮과 밤을 다스리게 하셨다(창 1:16).

이런 창조의 법칙에서 사람들이 종종 혼동하는 것은 ‘낮’을 주관하는 자연적 창조인 ‘해’를 하나님을 상징하는 ‘빛’과 혼동 한다는 것이다. ‘빛’은 자연적인 창조의 현상이 아니라 영원한 현상이며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법칙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낮에 보였다 사라지는 ‘해’를 전통적으로 섬겨왔고 눈에 볼수 없는 ‘빛’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지 못했다. 그리고 이런 현실은 종말을 향해 가는 인간의 역사의 종창역이 가까와 올수록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사도요한은 이런 하나님을 상징하는 영원한

창조의 법칙인 ‘빛’에 대해서 영적으로 새로운 재조명을 하였는

데 ‘그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고 했다. 그리고 그 ‘빛’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증언하고 있다. 도대체 창세기 1장과 요한복음 1장에서 밝히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아주 중요한 것은 창조 때 이미 존재하던 '어둠' 속에 '빛' 이 들어와서 '빛' 과 '어둠' 을 나누게 하신 것은 결코 '빛' 과 '어둠' 이 하나 될수 없다는 것을 선포하신 것이다. 그리고 요한은 그 '빛' 이 세상에 다시 오셨는데 어둠에 갇힌 세상은 그를 알아 보지 못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나에게 중요한 것은 그 '빛' 을 영접하는 자들이 어둠속에서 존재해 왔다는 사실이고 그들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요한은 밝히고 있다. 그러므로 세상에는 오직 두 종류의 사람들만이 존재 할수 밖에 없다. '해' 의 존재와 능력을 알아 보고 자연의 법칙에 의존해서 살아 가는 사람들과 자연의 법칙 위에 존재하는 '빛' 의 존재를 믿고 그 '빛' 을 의지하며 살아 가는 사람들 뿐이다. 당신은 과연 그 '빛' 을 알아보고 영접한 자인가? 당신은 정말 '빛의 자녀' 인가? 아니면 날마다 보이는 해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면서 희미하게 느껴지는 '빛' 의 존재에 대해서 의아해 하며 살고 있는가? 우리가 기억해야하는 것은 '해' 는 내가 살동안만 필요한 것이지 나를 영원히 살게하는 '빛' 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그리고 '어둠' 은 반드시 '빛' 과 나누어져야만 하는 것이지 절대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오늘날 밤의 활동은 더 깊어지고 낮과 밤의 구별이 없어진 것처럼 죄와 공존하는 인간의 욕망은 빛의 존재를 더욱 희미하게 만들어 간다. '빛의 자녀' 처럼 살아가자! 아멘…!